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이 병 훈*

요약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기회불평등의 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대학원의 고학력(+), 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기회불평등, 수저계급론, 주관적 계층지위, 소득분배구조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bhlee@cau.ac.kr

1. 머리말: 문제제기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금수저·흙수저”로 구분되는 수저계급론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계층적 신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대중적 담론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지난 개발연대에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산업화에 따른 직업구조 변화를 겪으며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라고 비유되듯 이 계층상승의 희망이 상당히 현실화되어 왔다.(여유진 외, 2011; 박병영 외, 2010; 노대명, 2009; 방하남·이성균, 1996) 그런데, 최근 수년동안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중하층 가구의 청년세대들은 상류계층의 자녀들이 그들 부모의 ‘빚’과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손쉽게 계층지위 유지 또는 상승의 사회 진출을 이루고 있는 부조리한 사회현실을 빗대어 수저계급의 대중 담론을 쉽게 수용하고 있다. 특히,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정유라의 입학/학업 특혜비리 등이 드러나면서 최근 촛불집회를 통해 청년 뿐 아니라 중고교학생들에게까지 수저계급의 존재에 대해 공감대가 널리 형성·확산되고 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존재치 않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수저계급론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다’는 좌절감에 기반하여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N포세대’, ‘헬(Hell)조선’ 등의 유행어와 더불어 최근 우리 사회에 대한 절망과 혐오를 표출하는 비관적인 대중정서의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이하영·이수영, 2016; 여유진 외, 2015; 이재완, 2013)

최근 수저계급론의 대중적 확산을 여실히 드러내는 여러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정부 통계에서는 소득분배구조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는 상충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의 사회조사를 비롯해 한국행정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서 계층의 대물림과 기회의 불공정을 문제제하는 국민여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적 빈곤율 등과 같은 소득분배지표에 관한 정부통계에서는 2010년 이후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구조가 상당히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소득분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저계급론으로 대변되는 계층적 신분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을 만하다. 특히,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소실되었음을 함의하는 수저계급론의 확산은 계층 및 세대간의 위화감과 대립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킴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 통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이양호 외, 2013)

그동안 소득 및 자산의 경제적 지표를 활용하여 계층이동 또는 계층대물림의 변동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국내외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온 반면, ‘수저계급론’과 같이 계층세습에 대한 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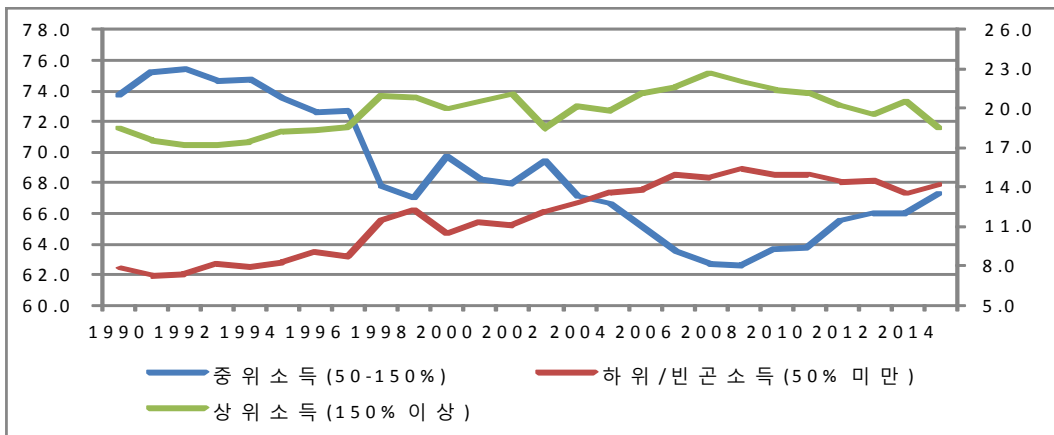
적 정서/사회심리의 형성-확산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때, 사회계층의식(social status consciousness) 또는 주관적 계층지위인식(subjective status identification)은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어떠한 계층적 위계수준에 속하는지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분석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병훈·윤정향, 2006) 또한, 주관적 계층상승가능성(prospect of upward mobility: POUM)이란 “자신의 사회계층이 세대 내 혹은 세대 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Kelly & Kelly, 2008)”를 의미한다. 그런데, 사회불평등은 조건의 불평등,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결과의 불평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조화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신광영, 2016; 신광영, 2001), 사회계층의 주관적 인식은 조건·기회·결과의 계층적 여건이 복합적으로 영향 미쳐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저계급론’과 같이 계층대물림이나 계층세습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는 조건과 결과의 불평등 보다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평가와 판단이 주되게 작용할 것으로 추론된다. 사회계층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인식태도가 상호 괴리되어 경제적 분배구조의 변동과 무관하게 국민들의 사회심리적 담론이 형성·표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계층적 분단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표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요인을 규명·검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소득 및 자산의 경제적 지표에 입각한 중산층의 측정과 주관적 계층지위의 자리매김 사이에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적 계층지위와 사회심리적 계층의식간의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있다.(김정훈 외, 2016; 윤희숙, 2013)

이번 연구는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 무관하게 ‘금수저-흙수저’로 대표되는 수저계급론이 널리 확산되는 최근의 사회적 담론 현실에 주목하여 계층상승의 기회불평등 구조에 대한 국민 인식의 실태 파악과 인과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수저계급론은 기회불평등에 따른 계층 대물림에 대한 국민적 좌절감을 담론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이 연구에서는 계층이동의 가능성과 계층 대물림에 대한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살펴봄과 더불어 2016년에 실시한 동그라미재단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과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2절에서는 2000년대 소득분배구조의 변동 추이와 주관적 계층지위인식 그리고 계층대물림에 대해 통계청의 조사자료와 민간·공공 정책연구소의 국민인식 설문조사 자료를 차례로 살펴보고, 3절과 4절에서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자료의 소개와 더불어 이 자료를 활용하여 세대간 계층지위변동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검토함과 동시에 기회불평등의 인식태도에 유의하게 작용하는 영향요인들을 검출한 다음, 5절에서 이번 실증분석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2. 소득분배구조와 계층이동 인식의 괴리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2인 이상의 도시 근로자가구에 있어 1990년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소득분배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08~2009년을 전후하여 대체로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에서 예시하듯이 시장소득 분배구조에 있어 1990년 초반 이후 내리막 추세를 보이던 중위소득(50~150%) 가구의 비중이 2009년의 최저점(62.6%)을 지나면서 2000년대 초반의 67%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하위소득(50% 미만)가구의 비중은 마찬가지로 2009년의 최고점(15.4%)을 전후하여 하락하여 2015년 14.2%로 줄어들었으며, 상위소득(150% 이상)가구의 경우 2008년의 22.6%에 이르렀던 비중이 그 이후 2015년까지 18.5%로 감소하였다. [그림 2]에서는 가처분소득 분배구조의 변동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위소득가구의 비중이 2008년의 66.3%로 하락하였다가, 그 이후 2015년의 66.3%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상위소득가구의 비중 역시 2008년에 최고 수준(21.2%)을 기록하였다가 2015년의 14.2%로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며, 하위소득가구의 경우 2009년의 13.1%로 늘어났던 비중이 그 이후 2015년까지 10.4%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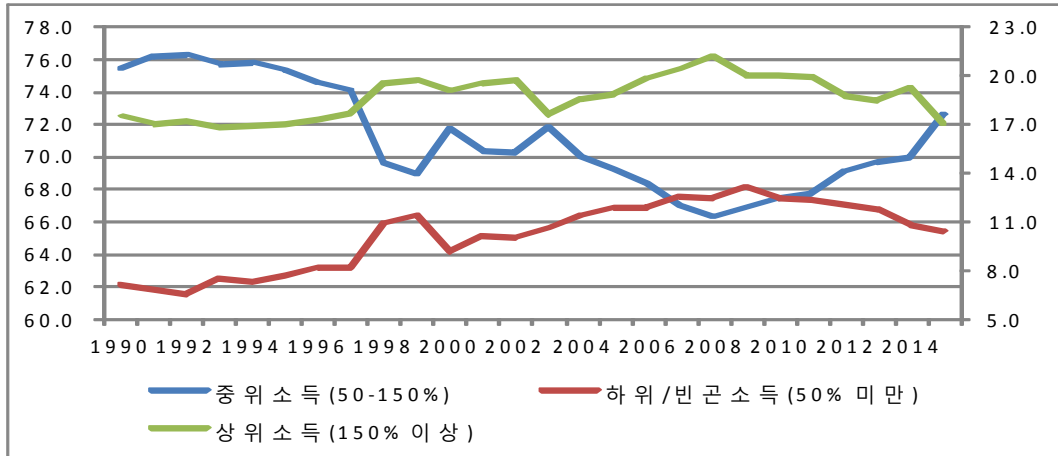
[그림 1] 시장소득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대상)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

(주) 시장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그림 2] 가처분소득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대상)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

(주) 가처분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비소비지출,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대상

[표 1]에서는 전체가구와 도시가구(2인 이상)를 대상으로 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빈곤율(중위 소득 50%미만)의 소득분배 지표들을 중심으로 2006~2015년의 기간 변동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가구의 시장소득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2009년을 지나면서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 그리고 도시 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경우에는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 모두에 있어 2009년 이후 소득불평등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하는 가처분소득에 있어 그 개선 정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가구의 시장소득분배에 있어서는 2009년을 전후하여 소득불평등구조가 일정하게 개선되다가 2014~2015년에 다시금 악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비도시가구의 소득감소와 1인가구의 급증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1] 가구소득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전체가구와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

	전체가구						도시 2인 이상 가구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지니 계수	5분위 배율	상대 빈곤율	지니 계수	5분위 배율	상대 빈곤율	지니 계수	5분위 배율	상대 빈곤율	지니 계수	5분위 배율	상대 빈곤율
2006	.330	6.65	16.6	.306	5.38	14.3	.305	5.39	13.8	.285	4.62	11.9
2007	.340	7.09	17.3	.312	5.60	14.8	.316	5.79	14.9	.292	4.84	12.6
2008	.344	7.38	17.5	.314	5.71	15.2	.319	5.93	14.7	.294	4.88	12.5
2009	.345	7.70	18.1	.314	5.75	15.3	.320	6.11	15.4	.295	4.97	13.1
2010	.341	7.74	18.0	.310	5.66	14.9	.315	6.02	14.9	.289	4.82	12.5
2011	.342	7.86	18.3	.311	5.73	15.2	.313	5.96	15.0	.288	4.82	12.4
2012	.338	7.51	17.6	.307	5.54	14.6	.310	5.76	14.4	.285	4.67	12.1
2013	.336	7.60	17.8	.302	5.43	14.6	.307	5.70	14.5	.280	4.56	11.8
2014	.341	8.08	17.9	.302	5.41	14.4	.308	5.67	13.5	.277	4.42	10.8
2015	.341	8.24	18.6	.295	5.11	13.8	.305	5.67	14.2	.269	4.40	10.4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

(주) 소득5분위배율(배)- 상위 20% 소득을 하위 소득 20% 소득값으로 나눈 값;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 50% 미만의 인구 비율

소득분배구조의 개선과 달리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대한 국민 인식은 [표 2]에서 예시하듯이 2009년 이후 오히려 부정적인 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사회조사에 포함된 주관적 계층지위의 인식태도를 살펴보면 가구주 및 전체 인구에 있어 상위-중위-하위의 상대적 비중이 년도별로 다소 등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대내 계층이동과 세대간 계층이동에 대해서는 2006~2015년의 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구주와 전체 인구 모두에 있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세대내, 즉 본인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응답비율이 가구주와 전체 인구에 있어 각각 2006년의 46.7%와 43.1%에서 2015년의 62.2%와 61.3%로 현저하게 늘어났고, 흥미롭게도 세대간, 즉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에 비관적인 응답의 비중이 29.0%와 27.3%에서 절반을 넘는 50.5%와 51.4%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주관적 계층지위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국민 인식

(단위 %)

	가구주					13세 또는 19세 이상 인구				
	상	중	하	세대내 이동 낮음	세대간 이동 낮음	상	중	하	세대내 이동 낮음	세대간 이동 낮음
1999	1.1	54.9	44.0	21.7	41.2	-	-	-	-	-
2003	1.4	56.2	42.4	33.2	45.4	-	-	-	-	-
2006	1.5	53.4	45.2	46.7(27.5)	29.0(39.9)	1.4	56.1	42.4	43.1(28.3)	27.3(38.2)
2009	2.7	54.9	42.4	58.1(35.7)	30.8(48.4)	2.2	58.8	39.0	45.6(37.6)	29.8(48.3)
2011	1.9	52.8	45.3	58.8(28.8)	43.0(41.7)	2.1	58.1	39.8	54.9(32.3)	42.7(41.4)
2013	1.9	51.4	46.7	57.9(28.2)	43.8(39.9)	1.9	57.4	40.7	54.2(31.2)	42.8(39.6)
2015	2.4	53.0	44.6	62.2(21.8)	50.5(30.9)	2.4	57.9	39.7	61.3(22.8)	51.4(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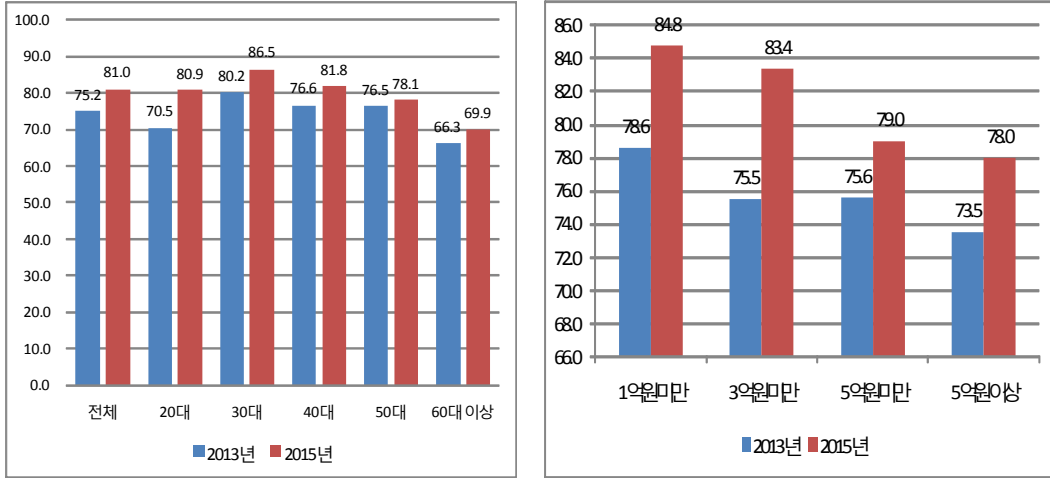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 (통계청 사회조사)

(주) ‘세대내/간 이동 낮음’은 ‘매우 낮다’와 ‘비교적 낮다’의 합산 비중(괄호안 긍정 응답 비율); 2009년 조사에는 비가구주 인구로 1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2011년 이후에도 세대내 이동의 경우에는 13세 이상, 세대간 이동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으로 분석대상을 설정함.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3년과 2015년(7~8월)에 실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전국 20대 이상 성인 810명 대상의 유선전화조사)에 따르면 계층상승 가능성과 부·가난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고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에서 예시하듯이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계층상승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설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2013년의 75.3%에서 2015년의 81.0%로 증가하였다. 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0대가 가장 높은 부정적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40대와 20대가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나고, 자산 규모가 줄어들수록 비관적 응답의 비율이 뚜렷하게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의 종사자들이 정규직과 고임금 종사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부정적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2015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부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이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그림 4]에서 보여주듯이 무려 90% 넘는 전체 응답자가 ‘심각하다’라는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령층과 자산규모의 범주별로는 87.2~94.2와 89.2~94.5%의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연령층과 자산규모별 부정적 응답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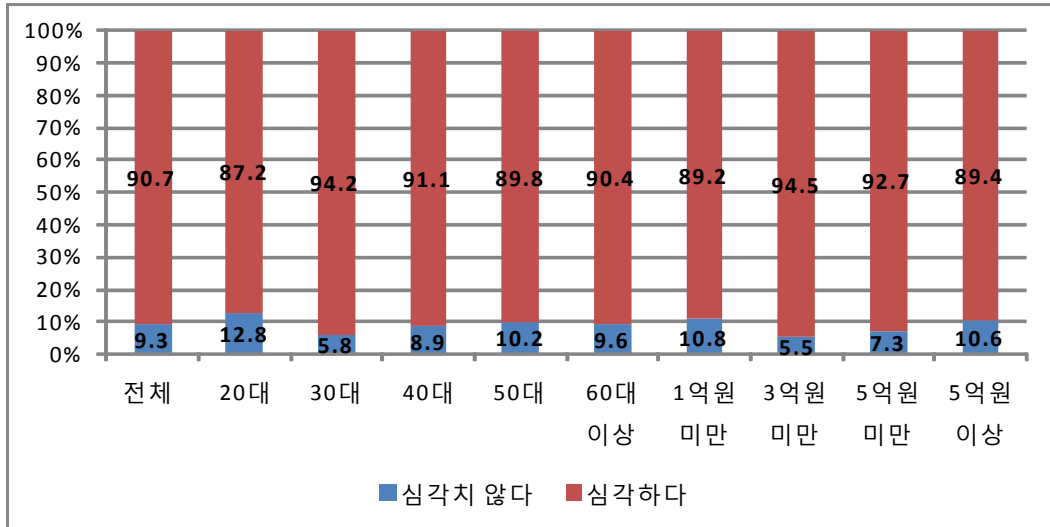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5)

[그림 4] 부/가난 대물림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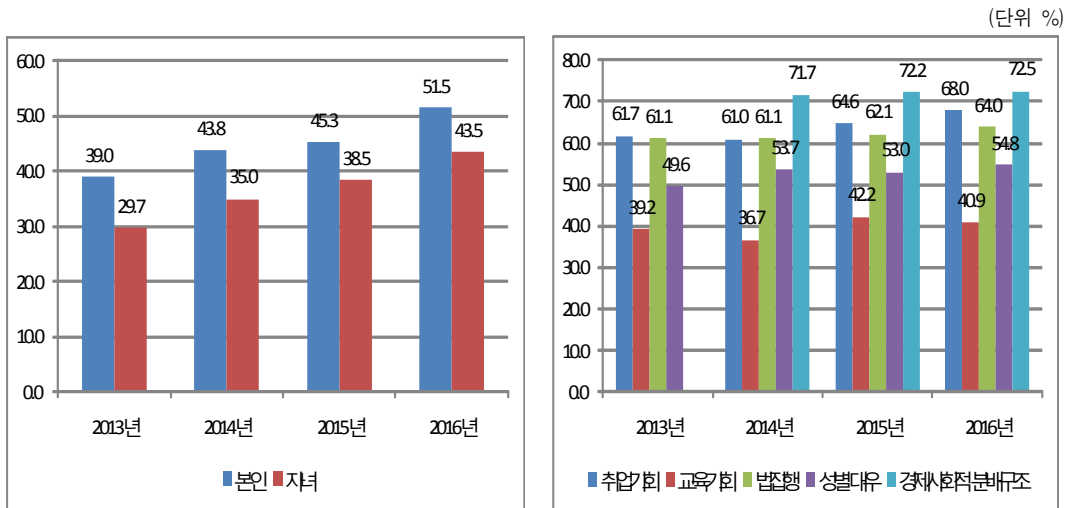


(출처) 현대경제연구원(2015)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13년~2016년에 실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전국 20~70세 이상 성인 2013년 5천명 ~ 2016년 8천명 대상의 조사원 면접조사)에 따르면 [그림 5]에서 보여주듯이 계층상승 가능성과 사회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이 기간에 걸쳐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의 설문에 대해 본인과 자녀의 계층지위 상승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2013년의 39.0%와 29.7%에서 2016년의 51.5%와 43.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전혀 공정하지 않다 ~ 매우 공정하다의 4점 척도)의 설문에서는 2013~2016년의 기간에 취업기회(61.7%→68.0%)·교육기회(39.2%→40.9%)·법집행(61.1%→64.0%)·성별대우(49.6%→54.8%)·경제사회적 분배구조(2014년 71.7%→72.5%)에 있어 부정적 응답비율이 다소 차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 지위상승 및 기회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중



(출처) 한국행정연구원(20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0년대 말 이후 객관적인 소득분배구조의 일정한 개선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계층이동/세습이나 사회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날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공식 통계지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본인과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을 구현할 수 있는 기회 공정성에 대해 오히려 비판적인 태도를 갈수록 높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적 신분구조의 고착화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러면, 왜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신분변동과 기회 공정성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 그들의 사회계층 지위와 차별 경험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3. 분석자료와 연구방법

이 절에서는 우리 사회의 기회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어떻게 동그라미재단에서 실시한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의 자료를 활용했는지를 서술한다.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는 전국 만 16세 이상 만 74세 이하의 3,500명을 조사표본으로 삼아 2016년 3월~4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조사표본의 기본 구성은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3]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의 응답자 구성

(단위: 명, %)

인적 속성		사례수 및 구성비(%)
성별	남성	1,773 (50.6)
	여성	1,727 (49.4)
연령집단	10대*	208 (5.9)
	20대	586 (16.7)
	30대	653 (18.6)
	40대	756 (21.6)
	50대	710 (20.3)
	60대 이상	588 (16.8)
학력	중졸 이하	123 (3.5)
	고교 졸업·재학·중퇴	1,277 (36.5)
	전문대 졸업·재학·중퇴	539 (15.4)
	일반대 졸업·재학·중퇴	1,290 (36.9)
	대학원 재학 이상	270 (7.7)
경제활동 지위	정규직 임노동	1,273 (36.4)
	비정규직 임노동	448 (12.8)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423 (12.1)
	실업/구직자	419 (12.0)
	비경제활동	937 (26.8)

(주) *- 이 조사에서는 만 16세~18세의 고등학생 500명을 할당하여 보정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기회불평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층이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우리 사회의 기회구조에 대한 평가의견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인과관계 등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다. 우선 부모세대(응답자의 15세 중학교 3학년 기준)-본인세대-자녀세대에 걸쳐 주관적 계층지

위의 인식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고, 우리 사회의 기회구조와 관련해서는 사회경제적 성취를 거둠에 있어 기회의 공평성, 다양한 기회조건의 불평등 정도, 능력주의 (meritocracy)의 보장 여부를 중심으로 그 실태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회불평등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 본인과 부모세대의 주관적 계층지위인식, 가구소득 수준, 차별·불이익의 사회적 경험을 주된 설명변수로 삼아 인과분석 및 연령집단간 ANOVA검정을 수행하였다. OLS 회귀모형을 적용한 인과분석에서는 통제변수로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개인속성으로 성별·연령·학력·경제활동지위를 포함시켰다. 회귀모형에서 분석되고 있는 주요 변수들은 [표 4]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다¹⁾:

[표 4] 회귀분석의 주요 변수들

종속변수	기회 불공평	“사회경제적 성취에 기회의 공평한 보장 여부” 1점 매우 공평하다 ~ 5점 매우 불공평하다.
	기회 불평등 정도	“사회적 배경에 따라 기회 불평등 정도의 심각성” - 교육· 사회적 인맥·취업/승진·문화활동·건강관리·정보획득 6개 설문 항목의 단일 요인점수 추출
	노력성취의 부정 평가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한 개인 노력의 결과여부”를 묻는 3개 설문 항목의 단일 요인점수 추출
설명·통제변수	성별(더미)	남성=1
	연령	만나이
	학력(더미)	고교 학력 기준범주
	경제활동지위(더미)	정규직 기준범주
	가구소득(더미)	하층가구(월소득 200만원 이하) 기준범주, 중하(201~ 400만원)·중상(401~600만원)·상층가구(601만원 이상) 구분
	부모 계층지위	응답자 15세 시점의 계층지위(1~10분위 점수)
	본인 계층지위	현재의 계층지위(1~10분위 점수)
	차별 경험	차별·불이익 경험의 4개항목(가족배경·성별·나이·학력/학벌) 단일 요인점수 추출

1) 당초 회귀모형에 부모세대(15세 기준)의 계층지위와 현재 계층지위간의 변동폭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 변수가 다른 설명변수인 부모세대 계층지위와 현재 계층지위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어 다공선성의 문제를 드러냄에 따라 제외시켰음을 밝혀둔다. 아울러, 거주지역을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광역시와 비광역시로 구분하여 회귀 모형에 포함시켰을 때 모든 종속변수에 $P < .05$ 의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불평등을 많이 겪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기회 불평등의 주관적 인식태도에 대한 실증 분석

1) 계층지위 변동의 주관적 평가

[표 5]에서는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의 응답자들이 부모세대·본인세대·자녀세대의 계층지위를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계층지위를 묻는 설문문항들은 “한국 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15세(중학교 3학년 무렵- 부모세대), 현재(본인세대), 그리고 자녀가 귀하의 나이가 되었을 때(자녀세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하위계층(계층 1분위~3분위)로 응답하는 비중은 부모세대(회고 응답)의 40.2%에서 본인세대(현재 평가)의 26.8%, 그리고 자녀세대(미래 전망·기대)의 11.0%로 하락하고 있음. 반면, 중간계층(계층 4분위~7분위)과 상위계층(계층 8분위~10분위)는 각각 부모세대·본인세대·자녀세대에 걸쳐 55.3%→69.1%→70.2%와 4.5%→4.3%→18.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세대별 계층분위별 분포

(단위: 명, %)

		부모세대 계층지위	본인세대 계층지위	자녀세대 계층지위
하위계층	1분위	196 (5.6)	114 (3.3)	59 (1.7)
	2분위	364 (10.4)	238 (6.8)	88 (2.5)
	3분위	847 (24.2)	586 (16.7)	238 (6.8)
	소계	1,407 (40.2)	938 (26.8)	385 (11.0)
중간계층	4분위	596 (17.0)	672 (19.2)	338 (9.7)
	5분위	708 (20.2)	872 (24.9)	783 (22.4)
	6분위	386 (11.0)	559 (16.0)	661 (18.9)
	7분위	247 (7.0)	313 (8.9)	673 (19.2)
	소계	1,937 (55.3)	2,416 (69.1)	2,876 (70.2)
상위계층	8분위	118 (3.4)	118 (3.4)	456 (13.0)
	9분위	29 (0.8)	24 (0.7)	147 (4.2)
	10분위	9 (0.3)	3 (0.1)	56 (1.6)
	소계	156 (4.5)	145 (4.2)	659 (18.8)

[표 6]에서는 상·중·하층의 계층집단별로 부모세대에서 본인세대로, 그리고 본인세대에서 자녀세대로 계층지위의 변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정리·제시하고 있다. 부모세대→본인세대와 본인세대→자녀세대의 계층지위 변동에서 전체적으로 지위상승(43.9%와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위 유지(31.5%와 26.8%)와 지위 하락(24.6%와 8.6%)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부모세대에서 하위계층집단에 속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세대에서 지위상승을 하였다고 비율이 67.2%에 달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지위 유지와 하락이 각각 26.5%와 6.3%로 나타남. 부모세대가 중간계층과 상위계층에 속한 응답자들은 각각 지위 유지(36.1%)와 지위 하락(78.1%)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인세대가 하위계층과 중간계층에 속한다는 응답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녀세대의 지위상승(73.4%와 65.1%)을 가장 높은 비중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상위계층에 속한다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상류층 지위를 유지할 것을 전망한다는 비율(40.3%)이 가장 높다. 같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신광영(2016)과 김영미(2016)는 중장년층(40대 이상)과 청년층(30대 이하)을 대상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사회계층지위가 부모세대 또는 가정배경(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광영(2016)은 계층지위이동에 대한 중장년층의 주관적 인식을 상-중-하 계층집단간의 승산비(odds ratio)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부모세대→본인세대의 계층이동과 특히 본인세대→자녀세대의 계층유지 승산비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계층 대물림의 경향을 확인시켜준다. 김영미(2016)의 경우에는 가족배경(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다른 연령층(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비해 유지되는 것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청년층에 있어 ‘계층화된 불평등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 6] 계층집단별 세대간 지위변동의 주관적 인식

(단위: 명, %)

	부모세대 지위 ⇒ 본인세대 지위			본인세대 지위 ⇒ 자녀세대 지위		
	하락	유지	상승	하락	유지	상승
하위계층	89 (6.3)	372 (26.5)	945 (67.2)	45 (4.8)	204 (21.8)	688 (73.4)
중간계층	650 (33.6)	699 (36.1)	588 (30.4)	217 (9.0)	625 (25.9)	1,572 (65.1)
상위계층	121 (78.1)	30 (19.4)	4 (2.6)	39 (27.1)	58 (40.3)	47 (32.6)
합계	860(24.6)	1,101(31.5)	1,537(43.9)	301(8.6)	938(26.8)	2,307(66.0)

(주) 괄호안에는 계층내의 상대적 비중(%)을 표기.

2) 기회 불평등의 인식태도에 대한 인과분석

[표 7]에서는 계층지위별로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태도의 유의한 차이 여부를 일원분산분석(ANOVA)검정을 실행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위계층 > 중간계층 > 상위계층의 순으로 일관되게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공평에 대한 인식²⁾,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³⁾, 그리고 노력 성취의 부정적 평가태도⁴⁾에 대해 주관

적 인식태도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하위계층 > 중간계층 > 상위계층의 순으로 계층지위에 따라 부정적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표 8]에서 보여 주듯이 부모세대의 계층지위별로 기회불평등의 3개 항목에 대한 ANOVA 검정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위계층 > 중간계층 > 상위계층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7] 본인 계층지위별 기회불평등의 인식태도 차이에 대한 ANOVA 검정

	하위계층(A)	중간계층(B)	상위계층(C)	ANOVA 검정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공평	3.90(.819)	3.62(.775)	3.17(.846)	A>B>C ***
기회불평등 심각성 (요인값)	.284(1.050)	-.086(.951)	-.416(1.065)	A>B>C ***
노력성취 부정 평가 (요인값)	.283(.987)	-.066(.973)	-.725(.972)	A>B>C ***

(주) 평균(표준편차) 값 표기; ANOVA 검정의 통계적 유의도 *** p < .001

[표 8] 부모세대 계층지위별 기회불평등의 인식태도 차이에 대한 ANOVA 검정

	하위계층(A)	중간계층(B)	상위계층(C)	ANOVA 검정
사회경제적 기회의 불공평	3.79(.809)	3.62(.784)	3.37(.901)	A>B>C ***
기회불평등 심각성 (요인값)	.129(1.035)	-.072(.958)	-.275(1.049)	A>B>C ***
노력성취 부정 평가 (요인값)	.123(.996)	-.065(.982)	-.424(1.067)	A>B>C ***

(주) 평균(표준편차) 값 표기; ANOVA 검정의 통계적 유의도 *** < .001

[표 9]에서는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전체 응답자와 연령층집단의 세부 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체 응답자집단에 있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대학원 학력(+),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회경제적 기회불평등의 주관적 인식태도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차별과 불이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대학·대학원의 고학력자, 비정규직 또는 실업자

- 2)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루는데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1점 ‘매우 공평하다’ ~ 5점 ‘매우 공평하지 않다’의 척도를 적용하고 있다.
- 3) “우리 사회에서 성별, 소득, 집안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 기회의 불평등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설문항목으로 교육기회·취업기회·사회적 인맥 형성·문화활동기회·건강관리기회·정보획득기회의 6개 항목에 대해 1점 ‘전혀 심각하지 않다’ ~ 7점 ‘매우 심각하다’의 척도를 적용한다.
- 4)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대해 (1) 고위층의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성취는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 (2) 한국 사회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이다, (3) 한국 사회는 집안 등 사회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노력 보다 성공에 더 중요하다 [역코딩]의 3개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의 설문으로 1점 ‘매우 그렇다’ ~ 5점 ‘매우 그렇지 않다’의 척도를 적용하였다.

인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기회 불공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게 표출하는 반면,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가 높거나 고연령층에 해당될수록 사회경제적 성취 기회의 불공평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 구분해보면, 청년층(10~20대)의 경우에는 상위소득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성취기회의 불공평에 대해 덜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집단에서는 비경제활동집단이 더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표 9]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1-1 (전체)	모형 1-2 (10~20대)	모형 1-3 (30~40대)	모형 1-4 (50대 이상)
성별 (남성=1)		.034 (.028)	-.110 (.061) †	.042 (.044)	.089 (.048) †
연령 (만나이)		-.004 (.001)***	-.012 (.013)	-.004 (.004)	-.010 (.004)*
학력 (고교 기준)	중졸 이하	.021 (.075)	-	-.469 (.405)	.034 (.084)
	전문대	.037 (.041)	.116 (.111)	.087 (.061)	.031 (.076)
	일반대학	.133 (.033)***	.249 (.098)*	.152 (.053)**	.117 (.059)*
	대학원	.162 (.053)**	.396 (.174)*	.210 (.072)**	.069 (.111)
경제활동지위 (정규직 기준)	비정규직	.090 (.043)*	-.139 (.115)	.063 (.065)	.205 (.074)**
	자영자	.032 (.044)	-.576 (.323) †	.117 (.067) †	.058 (.066)
	실업자	.100 (.046)*	-.031 (.089)	.126 (.079)	.261 (.110)*
	비경제활동	.054 (.036)	.016 (.103)	-.032 (.064)	.156 (.066)*
가구소득 (하위 기준)	중하가구	.059 (.042)	.152 (.087) †	.060 (.074)	.027 (.064)
	중상가구	.072 (.045)	.101 (.097)	.130 (.078) †	-.005 (.072)
	상위가구	.054 (.051)	.225 (.106)*	.031 (.089)	-.007 (.083)
부모 계층지위(15세 시점)		-.030 (.008)***	-.038 (.024)	-.006 (.012)	-.052 (.013)***
본인 계층지위(현재)		-.095 (.010)***	-.091 (.026)***	-.117 (.015)***	-.071 (.015)***
차별·불이익 경험 (요인)		.132 (.014)***	.114 (.030)***	.127 (.021)***	.145 (.023)***
상수		4.220 (.081)***	4.446 (.326)***	4.197 (.177)***	4.526 (.263)***
표본수		3,411	721	1,399	1,291
F		24.773***	5.741***	10.465***	11.089***
Adj R제곱		.106	.090	.098	.111

주: 괄호안(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p<0.001.

[표 10]에서는 기회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전체 응답자와 연령층집단의 세부 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집단에 있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 차별·불이익 경험(+), 남성(+), 연령(-), 전문대·대학·대학원 학력(+),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중하·중상·상위 가구소득(+)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전문대·대학·대학원의 고학력자와 남성,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 중간 및 상위 가구소득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기회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가 높거나 고연령층에 해당될수록 기회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의 분석모형에서는 중장년층(30~40대)의 경우 자영자의 종사상 지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기회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표 10] 기회 불평등의 심각성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2-1 (전체)	모형 2-2 (10~20대)	모형 2-3 (30~40대)	모형 2-4 (50대 이상)
성별 (남성=1)		.124 (.033)***	.006 (.074)	.115 (.056)*	.232 (.055)***
연령 (만나이)		-.009 (.001)***	.022 (.016)	-.017 (.005)***	-.013 (.005)*
학력 (고교 기준)	중졸 이하	-.025 (.091)	-	-.926 (.512) †	-.021 (.096)
	전문대	.108 (.049)*	.175 (.135)	-.100 (.077)	-.008 (.086)
	일반대학	.284 (.040)***	.348 (.119)**	.257 (.067)***	.131 (.067) †
	대학원	.276 (.064)***	.064 (.210)	.323 (.091)***	.043 (.127)
경제활동지위 (정규직 기준)	비정규직	.029 (.052)	-.011 (.139)	.117 (.082)	.020 (.084)
	자영자	.054 (.053)	-.150 (.392)	.185 (.084)*	.063 (.075)
	실업자	.110 (.055)*	.152 (.108)	.164 (.100)	.159 (.126)
	비경활	.118 (.043)**	.200 (.125)	.103 (.081)	.285 (.075)***
가구소득 (하층 기준)	중하가구	.153 (.050)**	.232 (.106)*	.121 (.094)	.120 (.073)
	중상가구	.193 (.054)***	.283 (.117)*	.171 (.099) †	.154 (.082) †
	상층가구	.121 (.062)*	.191 (.129)	.063(.112)	.167 (.094) †
부모 계층지위(15세 시점)		-.037 (.010)***	-.073 (.029)*	-.029 (.016) †	-.027 (.015) †
본인 계층지위(현재)		-.090 (.012)***	-.045 (.031)	-.094 (.019)***	-.085 (.017)***
차별·불이익 경험 (요인)		.251 (.017)***	.233 (.036)***	.239 (.027)***	.262 (.026)***
상수		.559 (.096)***	-.308 (.395)	.910 (.224)***	.627 (.300)*
표본수		3,411	721	1,399	1,291
F		39.592***	8.280***	12.290***	13.847***
Adj R제곱		.153	.132	.114	.137

주: 괄호안(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p<0.001.

[표 11]에서는 노력성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회귀분석 결과를 전체 응답자와 연령층집단의 세부 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집단에 있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불이익 경험(+), 연령(-), 중학교 학력(-), 전문대·대학·대학원 학력(+), 중하·중상 가구 소득(+),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태도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차별과 불이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 대학·대학원의 고학력자,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에 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노력 성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가 높거나 고연령층이나 저학력층(중학교 이하)에 해당될수록 기회 불평등의 부정적 평가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령층별로 구분해보면, 청년층(10~20대)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력성취에 덜 부정적 인식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50대 이상의 연령층집단에서는 비정규직과 비경제활동에 속하는 경우 노력성취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노력성취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형 3-1 (전체)	모형 3-2 (10~20대)	모형 3-3 (30~40대)	모형 3-4 (50대 이상)
성별 (남성=1)		-.004 (.034)	-.249 (.077)***	.066 (.055)	.139 (.056)*
연령 (만나이)		-.005 (.001)***	-.009 (.016)	-.003 (.005)	-.017 (.005)***
학력 (고교 기준)	중졸 이하	-.475 (.092)***	-	-1.825 (.501)***	-.350 (.099)***
	전문대	.119 (.050)*	.344 (.140)*	.091 (.075)	.107 (.089)
	일반대학	.229 (.040)***	.325 (.123)**	.223 (.066)***	.259 (.069)***
	대학원	.241 (.065)***	.206 (.219)	.296 (.089)***	.165 (.131)
경제활동지위 (정규직 기준)	비정규직	.024 (.053)	-.217 (.144)	-.009 (.080)	.190 (.086)*
	자영자	-.047 (.054)	-.718 (.407) †	.137 (.082) †	-.055 (.077)
	실업자	.031 (.056)	-.135 (.113)	.163 (.098) †	.290 (.129)*
	비경제활동	-.0154 (.044)	-.031 (.130)	-.028 (.079)	.143 (.078) †
가구소득 (하층 기준)	중하가구	.126 (.051)*	.242 (.110)*	.167 (.091) †	.031 (.075)
	중상가구	.188 (.055)***	.227 (.122) †	.226 (.096)*	.099 (.084)
	상층가구	.094 (.063)	.255 (.134) †	.035 (.110)	.061 (.097)
부모 계층지위(15세 시점)		-.050 (.010)***	-.042 (.031)	-.036 (.015)*	-.056 (.015)***
본인 계층지위(현재)		-.140 (.012)***	-.140 (.032)***	-.145 (.019)***	-.130 (.018)***
차별·불이익 경험 (요인)		.109 (.017)***	.116 (.038)**	.062 (.027)*	.135 (.027)***
상수		.862 (.098)***	.931 (.411)	.701 (.219)***	1.412 (.309)***
표본수		3,411	721	1,399	1,291
F		33.229***	7.297***	9.853***	15.579***
Adj R제곱		.131	.116	.092	.153

주: 괄호안(표준오차); † p<0.1, * p<0.05, ** p<0.01, ***p<0.001.

이상의 회귀분석을 종합해보면 우리 사회의 기회공정성 또는 기회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인 인식태도에 대해 몇 가지의 흥미로운 점들을 논증해볼 수 있다. 우선, 본인과 부모세대의 계층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따라 일관되게 기회불평등의 인식태도에 유의하게 영향 미치고 있는 점을 통해 아무래도 스스로 현재와 부모세대 시점의 계층지위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기회의 공평한 보장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 성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분석결과로 이해된다. 그런데, 가구소득 기준의 계층구분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이 높은 가구에 속할수록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흥미로운 대비를 보여준다. 계층지위 및 기회공정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소득분배구조의 객관적 변동과 일정한 괴리를 보여주듯이, 이번 분석을 통해서도 가구소득의 계층지위와 주관적인 계층지위 인식(본인과 부모세대 기준)이 기회불평등의 평가에 대해 상반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케 된다. 아울러, 기회불평등에 대해 소득기준으로 하층(빈곤층)에 비해 중상·중하에 해당되는 중산층의 국민들이 보다 비판적인 인식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는 고학력층일수록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석결과와 밀접하게 연관시켜 이해한다면, 기회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문제의식이 높은 고학력 중산층이 사회평등과 경제민주주의를 구현함에 있어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차별이나 불이익의 경험이 뚜렷하게 기회불평등의 인식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차별(예: 성차별, 연령차별, 국적차별, 지역차별, 출신학교차별, 외모차별 등)이 구조적인 성격으로 고착화되어 유지됨으로써 이를 경험한 국민들로 하여금 그 차별 경험을 기회불평등의 신분구조로 인식토록 만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회불평등에 대한 연령(-)과 실업(+)의 유의한 영향과 관련해서는 연령증가의 보수화 효과, 즉 나이 들수록 기회불평등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점으로, 그리고 실직자의 경우 생계의 핵심 조건이 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처지로부터 기회불평등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5. 맺음말

최근 널리 유포되어 있는 수저계급론과 관련하여 정부 통계와 여러 국민인식 조사의 검토와 기회불평등의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2008~2009년 이후 소득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으나, 세대내·세대간 계층이동·계층상승 또는 계층대물림·기회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은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기회불평등의 국민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첫째, 부모세대(15세 시점의 회고 응답)에 비해 본인세대에 있어, 그리고 본인세대에 비해 자녀세대에 있어 계층상승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계층이동에 대한 낙관적 평가와 전망/기대가 폭넓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기회불공평, 기회불평등의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주관적인 계층지위에 따라 그 부정적 평가의 정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성취기회 불공평, 기회불평등 심각성 그리고 노력성취의 주관적 인식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는 부모세대와 본인세대의 계층지위(-), 차별·불이익 경험(+), 연령(-), 대학·대학원의 고학력(+), 이 일관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연하면, 15세 성장기(부모세대)와 조사시점의 주관적 계층지위가 낮을수록, 차별·불이익의 경험을 가질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그리고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인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성취기회의 불공평과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업자 및 비정규직 또는 비경제활동집단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기회불평등의 심각성과 노력성취에 대해 중위소득 가구 및 상위소득 가구가 부정적인 인식태도를 나타내는 것 역시 특기할 만하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분배 구조와 주관적 계층의식의 괴리를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주관적인 계층의식이나 생활태도를 파악·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접근이 요망되며, 서구 선진국들(호주 포함)에서 정부가 주관적 행복감·생활만족 등에 대한 정례적 조사를 실시하여 그 지표의 변동흐름을 관련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는 점을 적극 참조하여 정책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다. 둘째, 우리 사회의 기회불평등에 대해 성장기와 현재의 주관적 계층지위 인식이 매우 중요하게 영향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수저계급론이 중하위 계층의 좌절감과 박탈감과 깊이 관련되어 있 있음에 유의하여 특히 중하위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취업·생계 등에 있어 기회구조의 병목(bottleneck, Fishkin, 2014)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원적 정책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직장 등의 생활공간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불이익의 체험이 기회불평등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깊게 각인시켜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약자의 보호를 위한 차별시정의 엄정한 징벌과 공정한 구제기제가 마련·집행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언될 수 있다. 또한, 기득권층의 자녀특혜 및 취업·병역비리, 갑질횡포와 권력남용에 대한 제도적 징벌을 강화하여 세습사회의 고착화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을 해소해 나갈 필요 있다(여유진 등, 2015; 김종성·이병훈, 2014).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상류층에 대해 다른 서민계층과의 사법적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 뿐 아니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도덕적 규범을 온전히 확립하기 위해 이를 위배하여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응분의 책임을 부과하는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시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 있다. 넷째, 우리 사회의 기회 불평등에 대해 젊은 층과 고학력자들이 높은 부정적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은 취업난과 생활자립 곤란 등으로 중고령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층이동의 기회를 잃어버린 외부자세대(outsider generation)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들 세대의 절박한 위기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만큼, 좋은 일자리의 창출대책과 사회이행에의 생활지원(주거·부채·문화생활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정책”의 마련·시행이 요망된다. 또한, 비정규직과 실업자 그리고 예비취업자인 학생집단에 대해 노동시장과 교육현장에서 기회/신분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고용-교육정책의 공공성이 제고될 필요 있겠다. 아울러, 청년과 비정규직 그리고 실업자들에 대해 구직 기회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제공하기 위해 대기업 정규직의 내부자 기득권을 낮추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는 것이 요망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 김영미(2016).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불평등. 동그라미재단 연구리포트 4호 생애주기별 기회불평등연구.
- 김정훈, 김을식, 이다겸(2016).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9(3). 157-192.
- 김종성, 이병훈(2014). 부모의 사회계층이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90. 296-330.
- 노대명(2009). 계층이동과 탈락의 세습화: 외환위기 10년 계층구조의 변화. 황해문화. 64. 39-62.
- 박병영, 김미란, 김기현, 류기탁(2010). 교육과 사회계층이동 조사 연구: 교육계층화와 사회이동 추이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방하남, 이성균(1996). 신흥 개도국에서의 구조변동과 세대간 계급이동: 한국과 대만의 경우. 한국사회학. 30(3). 575-604.
- 신광영(2016). 한국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중장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25-141.
- _____ (2001). 사회 이동과 사회이동연구. 한국사회학. 35(5). 233-239.
- 여유진, 정해석, 김미곤, 김문길, 강지원, 우선희, 김성아(2015).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II: 사회통합과 사회이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김문길, 장수명, 한치록(2011).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강은(역) (2016). 병목사회: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 Fishkin, J. (2014). *Bottlenecks: A new theory of equal opportunity*. 서울: 문예출판사.
- 윤희숙(2013). 중산층 현황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략에의 시사점. KDI 경제전망. 30(1). 35-51.
- 이병훈, 윤정향(2006). 사회계층의식의 변동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70. 111-140.
- 이양호, 지은주·권혁용(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47(2). 25-43.
- 이재완(2013). 계층이동 사다리가 사회신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비선형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 189-223.
- 이하영, 이수영(2016). 사회계층이 국민의 희망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계층상승 가능성과 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5(3). 325-354.
- 한국행정연구원(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현대경제연구원(2015).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이슈리포트. 29. 15-29.

Kelly, S. & Kelly C. (2009). Subjective social mobility: data from 30 nations, in M. Haller, R. Jowell & T. Smith. (eds). *Charting the globe: the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1984-2009*. London: Routledge.

◀ Abstract ▶

Causal Analysis of Public Perception on Opportunity Inequality

Lee, Byoung-Hoon.

In Korea, 'spoon class discourse'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in the press and among young people, which reflects that mass awareness that the class status structure is clearly rooted in the society becomes widespread. Although income distribution has been improved since late 2000s, it is interesting that Korean people's subjective perception concerning class mobility and social justice has been worsened. By using the survey data on people's perception of opportunity inequality, this study finds that Korean people have by and large negative subjective awareness regarding socio-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and achievement by efforts, and that the degree of the negative perception is greater in accordance with the people's subjective identification. The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the social status of respondents and their parent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ge(-), and high education of college and above (+) have consistent effect over socio-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and achievement by efforts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More concretely, as people have lower subjective status identification at the time of parent generation and their own generation, as they have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ory misconduct, and as they are young and highly educated, they have negative or pessimistic perception regarding opportunity inequality.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unemployed and non-regular workers have significantly negative perception on socio-economic opportunity inequality,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while negative perception on the magnitude of opportunity inequality and achievement by efforts is noticeable among high and middle income households.

Key Words: opportunity inequality, spoon class discourse, subjective social status, income distribution

◆ 2017. 4.30. 접수 / 2017. 6.16. 1차수정 / 2017. 6. 20. 게재확정